

강이야기

1

River & Culture



정 해 옥 | (주)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 전문
/ 우리협회 역사문화특별위 위원장
(jh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11

달천 (達川)

달천(達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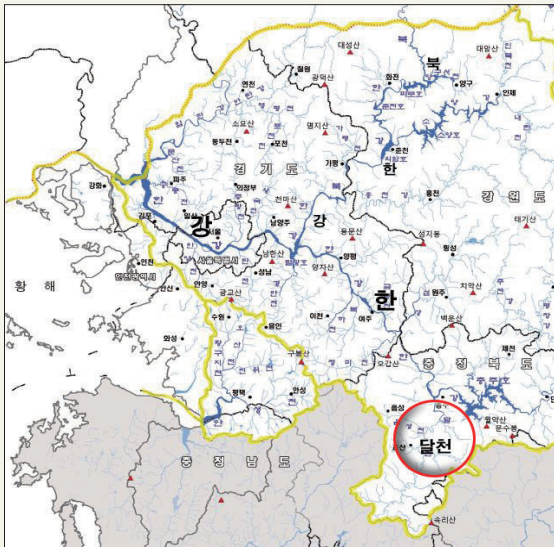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수정교 동쪽에서 발원하여 지방 하천이 되고 북서류하여 청원군 미원면, 증평군 증평읍, 괴산군 청천면을 북쪽으로 흐르며 여러 물을 모으고 괴산군 괴산읍 동쪽을 북류한다.

충주시 수안보면 석문동천 합류점에서 국가하천이 되고 충주시까지 서쪽 탄금대 서쪽에서 한강에 유입한다. '달천'은 우리말의 '달내'를 적기 위한 것이며 달천강, 달내강, 달

강, 달천천 등은 모두여기에서 파생된 말로 보고 있다. 이외에 청주, 증평지방에서는 박대천, 괴산지방에서는 청천강, 괴강, 괴탄, 살수라고도하였다.

달천의 유래를 살펴보면 첫째는 물맛이 좋아 '단넷물'이 '달넷물'로 즉 물맛이 달아서 '달천'이 되었다. 고려말 조선초기의 학자 이행은 우리나라 물맛을 '충주 달천의 물맛이 제일이고, 한강의 우통수가 둘째고, 속리산 삼타수가 셋째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고려사 「기유자집」과 권근의 「양촌집」 기우설 등에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달천을 지나다가 물맛을 보고 '이 물은 중국 여산(루산 산)의 발물과 같다'라고하여 「동국여지승람」, 「택리지」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 여산의 발물은 중국 제일의 물로 알려져 있다. 충주시 달천동은 달신, 단신, 이부, 송림리가 합병된 이름이며 달고달다 뜻의 단월동과 단호사가 있다. 상류에는 단물을 뜻하는 감물면, 감물리가 있다.

둘째는 형제 설로 행 내외와 동생이 달천을 건너 농사를 지었는데 형이 갑자기 죽게 되자 형수와 시동생이 농사를 짓게 되었다. 비가 와서 강물이 불면 형이 하던 것처럼 시동생이 형수를 업고 강을 건너곤 했는데 어느 날 남근이 발동한 것을 두고 형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에 자결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수가 '달내나 보지'하며 슬



달천



피 울었는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달래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달천 중간에 바위 2개가 있으며 송림 서쪽강가에 형제처럼 나란히 서있는 형제 바위가 있다.

셋째는 누나 설로 어느 날 남매가 이곳을 지나다가 소낙비를 만났는데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은 누나의 여체를 본 동생이 욕정을 강하게 느낀 자신을 저주하며 남근을 돌로 끊어 자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가 '달래나 보지'하며 슬퍼하였으므로 달래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형제 설처럼 누나를 업고 강을 건너 농사를 지었다고도 한다.

넷째는 이 강에 수달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달강이 되었다는 설이다 인근에 수달피 고개가 있으며 달천리 서쪽 물가를 '물개달래'라고 부른다. 수달을 조정에 진상했다는 기록도 있다.

달천이 한강에 합류하는 곳의 탄금대는 신라 진흥왕때 가야국의 악사 우륵(于勒)이 신라에 귀화하여 제자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쳤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순변사 신립(申瑰) 장군이 8천여 병사와 함께 이곳에 배수진을 치고 북상하는 왜적을 맞아 싸웠으나 순절한 곳이다. 세조가 목욕 했다는 북천암, 수안보온천, 문장대, 정이품송 등이 있다.

그 외 명칭

▶ 감천 甘川

충청북도 충주와 괴산지방에서 부르던 구간 명칭의 하나이다. 달천의 물맛이 달다고하여 '달 감(甘)'자를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조선 초기 이행(李行)이라는 선비가 물맛을 잘 구분하였는데 달천의 물맛이 나라 안에서 제일이라 하였다고 한다. 감천은 큰 내의 뜻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 (14첩 4면) 달천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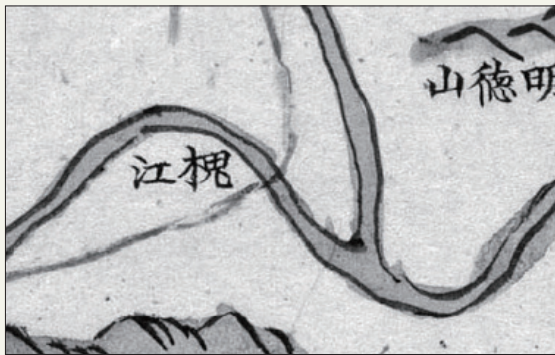
▶ 괴강 槐江

충청북도 괴산지방에서 부르던 구간명칭의 하나이다. 괴산은 예로부터 괴양(槐壤), 괴주(槐州)라고 부를 만큼 여러 마을에 크고 오래 된 느티나무(괘나무)가 많은데 달천이 괴산읍내 동쪽을 흐르므로 괴강, 괴탄, 괴진 등으로 불렸다. 괴

목(느티나무)은 주(周) 나라때 3공(三公)의 자리를 나타냈으므로 특히 많이 심었다.

▶ 달내강

충청북도 충주지방에서 부르는 이름의 하나이다. 달내, 달내강, 달강, 달천강 등 여러 가지로 불려왔다. '달내'의 유래는 들판을 흘러내리는 강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오누이 설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강물 맛이 달다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등이 전해지고 있다.



지승, 『괴산』 괴강 일대

▶ 달천 獺川

충청북도 충주지방에서 부르는 이름의 하나이다. 달천의 '달'이 수달(水獺)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강에 수달이 많이 살아서 수달래강이라 부르기도 하였다는 설이 있다. 부근에 수달피고개가 있다고 하며, 옛날 충주 고을의 진상품 중에 수달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 덕천 德川

충주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덕천은 큰 들판(덕)을 뜻하는 달천과 뜻이 같은 것으로 보며, '큰 내'의 뜻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 병이 깊은 남자가 한 고승의 말대로 1년동안 이 달내강에 돌로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마침 급한 환자가 있어 이 다리를 건너가서 병을 고쳤으므로 이 하천을 덕천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화가 전한다.

▶ 박대천 博大川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지방에서 부르던 이름의 하나이다. '박대천'은 넓고 큰 내를 뜻하는데 미원면의 옥화 9경 중에 박대소라는 넓고 깊은 소(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살수 薩水

충청북도 괴산지방에서 부르던 구간명칭의 하나이다. 괴산군 청천면은 본래 살매현(薩買縣)이었다. '살'은 여울이 얇고 물살이 빠른 물을 말하고 '매'는 물을 뜻하는 '수' 또는 '내'를 적은 것으로 물이 얇고 물살이 센 강을 '살내' 또는 '살수'라 하였다. '살매'는 '살수', '살내'와 같은 의미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그의 저서 『대동수경』에서 우리나라에 살수가 셋이 있는데 청주(현, 괴산군)의 살수, 진주(현, 산청군)의 살수며, 안주(북한)의 살수라 하였다.

▶ 삼파수 三派水

달천의 상류를 뜻하는 명칭의 하나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의 최고봉인 천황봉에서 흐르는 물은 그 물줄기가 셋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삼파수'라 하였다. 삼파수의 '파(派)'는 곧 물줄기를 뜻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보은)에는 "문장대가 있는데 (중략) 물이 세줄기로 나누어져 한줄기는 동쪽으로 낙동강, 한줄기는 남쪽으로 금강, 한줄기는 서쪽으로 달천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분수령으로 볼 때 삼파수는 문장대가 아니라 최고봉인 천황봉이 된다. 또 속리산에는 삼파수와 비슷한 삼타수(三陀水)가 있다. 삼 타수는 속리산 법주사와 수정암 사이의 냇물가에 있는데 일명 '법주약수' 혹은 '웃샘'이라고도 하며, 천황봉계곡, 문장대계곡, 묘봉계곡의 물이 지하에서 합수되어 흐름으로 삼타수라 부른다고 하였다.

▶ 청천강 靑川江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일대에서 부르던 구간 명칭의 하나이다. 옛날 우리말 '살(薩)'은 청(靑, 淸, 菁)으로 썼는데, 청천강은 곧 '살수'와 같은 이름이 된다. 괴산군 청천면은 본래 살매현(薩買縣)으로서 고려초에 청천으로 고쳐졌다. 🌊